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지혜 VI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1. 삶의 목적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명확히 나타나 있다.

[마태복음 6: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2. 내 삶이 하늘의 뜻 앞에 정렬되어 있어야 한다

하늘에 정렬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마지막 단계이다.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이로움을 말한다. (이사야 6장의 이사야의 고백)

[이사야 6: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하였더라

3.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땅의 성품

(1) 인내

인간은 기다리지 못한다.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오직 한 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신뢰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이다. 내 뜻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다. 내 뜻이 포기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인내이다. 기다림을 배우야 한다.

“익지 않은 열매를 절대 먹지 마라” 농부가 기다림을 배우지 않는다면 익지 않은 열매를 딸 것이다. 그리고 먹었을 것이다. 열매의 모양은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기다림의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열매로 익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조급하지 마라.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된다. 그래서 호기있게 자신을 던진다. 그런데 인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해석하지 못한다. 그리고 포기한다.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는 삶이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로마서 5: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비전 (하나님의 뜻)을 열매로 가져가는 사람은 적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인내를 배우라. 그 인내 속에서 시간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배울 것이다.

[다니엘 2:21]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2) 순종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품은 순종이다. 순종은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온전히 하나되는 단계를 말한다. 인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간의 영역을 다룬다면, 순종은 '능력'의 영역을 다룬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 앞에 망설이거나 주저하고 있는 내 마지막 능력이 죽는 단계를 말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다. '내 뜻,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만을 이루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는,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영역인지를 보여준다. 다윗과 압살롬의 대결을 보라.

* **압살롬** : 반역의 상징이다. 다윗을 대적할 힘의 구조를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결국 다윗을 능가할 힘의 구조를 확립한다. 자신의 힘이 강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은 완전히 떠난다. 바벨탑이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다. 결국 육의 힘은 영원하지 않다. 무너진다. 멸망이다. (제국화된 힘의 논리의 기독교는 결국 패망했다)

* **다윗** : 압살롬의 반역에 대하여 힘의 구조를 만들지 않는다. 부하를 걱정했고 백성들을 걱정했다. 요압의 잘못된 판단으로 압살롬을 자기 옆에 가까이 두게 하고, 결국 압살롬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들어준다. 만약 다윗이 힘의 구조에 민감한 사람이라면 압살롬의 요구를 그렇게 무방비 단위로 들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이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이다.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드는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한다. 다윗의 고백을 보라.

[사무엘하 15:25]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 If I find favor in the LORD's eyes, he will bring me back and let me see it and his dwelling place again. (NIV)

순종은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즉,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없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아래에서 보면 하나님은 악위에 존재하시며,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순종은 나의 잔이 비워지고 그 곳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해지는 것을 말한다. 순종은 자기성찰을 위한 성품이 아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합법적으로 허락되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성품이다. 그래서 순종의 삶에는 기적이 나타난다.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 힘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할 수 없지만, 순종은 내 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전심을 다해 붙잡는 단계이므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풍랑은 내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밤을 다해 고기를 잡아도 아무 수확이 없는 헛수고 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만선의 기쁨을 맛보게 한다.

그래서 불순종의 상징인 압살롬이 패망한 이유는 오직 하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에서 떠났기 때문이고, 그 이유가 불순종에 있다.

[에베소서 2:1-8]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4 공허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불순종은 사탄의 성품이다. 불순종의 아들 사탄에게 넘어간 인간의 성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한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다. 바벨탑은 결국 하늘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다.

압살롬의 대항 가운데 다윗이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이 모든 비극의 결과가 자신의 불순종의 씨앗으로 자란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신의 마음이 형상화된 것임을 알았다. 영적인 문제이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순종은 왕의 성품이다.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마음이다. 십자가의 마음이다. 결국 압살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직면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한다.

오늘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행위로 해석한다. 그렇지 않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원한지 않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도 아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 자체가 아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순종과 불순종의 영역은 3절의 고백처럼, 행위 이전에 육체의 욕심, 탐욕에 관한 것이다. 마음에 관한 것이다.

마음과 생각이 행위보다 먼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내 욕심을 채우기에 먼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만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은총의 사고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믿음의 사고이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사고이다. 어떤 환경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미리 붙잡는 사고이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사고이다.